

- **주요 뉴스:** 美 트럼프 대통령 EU에 최소 15~20% 관세 요구, 지니어스 법 서명
 - 연준 월러 이사, 금리인하 입장 견지. 사카고 연은 총재, 관세의 물가 영향 가시화
 - IMF, 세계경제 하방위험과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
 - EU, 유가 상한제 강화 등 18번째 對러시아 제재 패키지 채택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EU와의 무역협상 난항 등으로 위험회피 심리 우위
 - 주가 약보합[-0.01%], 달러화 약세[-0.3%], 금리 하락[-4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美-EU 무역협상 난항 등으로 약보합
유로 Stoxx600지수도 약보합
 - **환율:** 달러화지수는 연준 월러 이사의 7월 금리인하 필요 발언으로 하락
유로화 가치는 0.3% 상승, 엔화 가치는 0.2% 하락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연준 월러 이사 발언, 물가 전망 악화 등으로 하락
독일은 美-EU 무역협상을 주시하며 2bp 상승

※ 뉴욕 1M NDF 증가 1,388.7원(스왑포인트 감안 시 1,391.2원, 0.03% 하락). 한국 CDS 보합

		7/18일	7/17일	전일대비			7/18일	7/17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6,296.8	6,297.4	-0.01%	국채 금리 10y	미국	4.42%	4.45%	-4bp
	유럽	547.00	547.03	-0.01%		독일	2.70%	2.68%	+2bp
	중국	3,534.5	3,516.8	+0.50%		영국	4.67%	4.66%	+2bp
	일본	39,819	39,901	-0.21%	CDS 5y	한국	24bp	24bp	-
	한국	3,188.1	3,192.3	-0.13%		중국	43bp	44bp	-1bp
환율	달러지수	98.48	98.73	-0.26%	위험 지표	EMBI+	362	365	-3bp
	유로화	1.1626	1.1596	+0.26%		VIX	16.41	16.52	-0.67%
	엔화	148.81	148.58	-0.15%		WTI유	67.34	67.54	-0.30%
	위안화	7.1746	7.1817	+0.10%	원자재	구리	557.8	548.6	+1.68%
	원화	1,3916	1,392.2	+0.04%		금	3,349.9	3,339.0	+0.33%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트럼프 대통령 EU에 최소 15~20% 관세 요구, 지니어스 법 서명

- 미국과 EU는 최근 협상에서 대부분 품목에 10% 기본 관세를 유지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논의해 왔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EU산 모든 제품에 최소 15~20%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FT 보도
- 트럼프 대통령은 EU가 제안한 자동차 부문 관세 인하 방안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고 기존 계획대로 25% 고율 관세를 유지하길 원하며, 설령 협상이 타결된다 해도 10%를 넘어서는 상호관세율이 검토되고 있다고 미국 고위 관계자가 전언
- EU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15~20% 영구적 상호관세를 고집할 경우 EU는 이에 대한 강한 보복 조치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며, EU는 무역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미국이 선택지를 주지 않을 수 있다고 언급
-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니어스 법(Genius Act)은 달러를 담보로 한 스테이블 코인의 엄청난 가능성을 확고히 하고, 이를 실현할 명확하고 단순한 규제의 틀을 만든다면서 글로벌 금융과 가상자산 기술에 있어서 미국의 지배력을 공고히 하는 큰 걸음이 될 것이라고 언급
- 아울러 美 국채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고, 금리를 낮추며, 달러는 여러 세대 동안 세계 기축통화로서 지위를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전적으로 지키겠다고 천명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연준 윌러 이사, 금리인하 입장 견지. 시카고 연은 총재, 관세의 물가 영향 가시화

- 윌러 이사는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에 가깝고, 인플레이션 상승 위험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고용시장이 악화할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고 7월 FOMC에서 금리를 25bp 인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재차 언급
- 오스틴 굴스비 총재는 이번 소비자물가 보고서에서 관세가 물가를 올릴 수 있다는 점을 보기 시작했으며, 현재 경제가 상당히 견고한 위치에 있고 완전 고용에 가깝지만 몇 가지 경고신호가 나타났다고 평가

-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파월 의장 해임설에 대해서는 연준과 중앙은행 독립성에 대한 논쟁을 보는 것이 고통스럽다고 토로하고,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없는 나라의 인플레이션이 더 높고 성장은 더 나쁘다고 설명

■ IMF, 세계경제 하방위험과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

- 기타 고평나스 수석 부총재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부과한 관세가 계속해서 세계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달 말 업데이트하는 세계 경제 전망과 관련해 하방위험이 전망을 계속해서 지배하고 있다고 언급

■ EU, 유가 상한제 강화 등 18번째 對러시아 제재 패키지 채택

- 배럴당 \$60으로 고정된 기존 러시아산 원유 거래가격 상한제를 6개월 마다 직전 3개월 평균 가격에서 15%를 자동 인하하는 방식으로 변경. 아울러 러시아산 원유를 정제한 석유제품 수입도 전면 금지하는 한편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해 정제한 후 유럽에 수출하는 인도 내 대형 정유시설을 금수 대상에 포함

■ 미국 재무장관, 일본과의 무역협상은 좋은 타결이 중요

- 베선트 재무장관은 미국과 일본 간에 상호 이익이 되는 무역협정은 여전히 가능하다고 급한 타결보다 좋은 타결이 중요하다고 언급. 일본 이시바 총리는 베선트 장관이 반드시 좋은 타결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부연

■ 미국 7월 소비심리지수(예비치) 61.8로 5개월 만에 최고치, 물가 전망은 하락

- 6월 확정치(60.7)와 예상치(61.5)를 모두 상회했으며, 인플레이션 예비치는 4.4%로 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 기록. 다만 개인 재정에 대한 기대는 4% 가량 후퇴

■ 일본 재무상, 채권시장의 재정정책 우려 인지

- 가토 가쓰부노 재무상은 최근 시장 움직임이 향후 재정정책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며, 이런 종류의 시장 신호에 지속적으로 신중하게 대응하고 국채정책을 책임감 있게 관리하겠다고 언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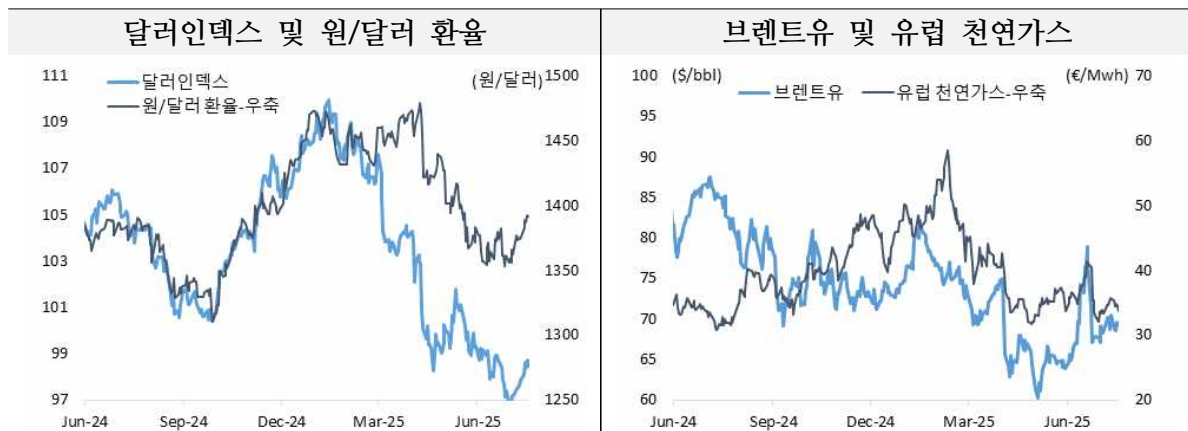
■ 시리아 남부 폭력 사태 격화, 시리아군 재진입 채비

- 시리아는 드루즈족과 베두인족 간의 전투를 진압하기 위해 정부군의 재배치를 준비 중이라고 발표. 드루즈족 보호를 천명한 이스라엘은 48시간 동안 이를 묵인하기로 합의했으며, 튀르키예는 이스라엘의 시리아 주권 침해에 반대 입장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231, E-mail jsch@kcif.or.kr